한민족 공동체본부 3월 발족

조계종 올 종무계획 발표…"대화합 조치 과감히 시행"

조계종이 (가칭)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남북교류와 통일운동에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올해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 발표를 통해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직속의 특별기구로 3월 중순 설치되는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통일종책 수립을 위한 연구 △통일의식 고양을 위한 대중사업 △남북불교교류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잡고 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남북불교통일토론회를 앞두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간단체 북한방문 적극 지원을 밝힌 바 있어 올 한해 남북불교교류를 비롯해 대북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계종에서 남북불교교류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이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설립하기로 한 배경은 △종단협의회 산하 기구인 민족화합불교추진위(불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이 별도로 남북불교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조계종도 별도의 남북불교교류 기구가 필요하며, 불추위로는 조계종단의 장기적인 남북불교교류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조계종은 이날 종무계획 발표를 통해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외에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실시 △청정종풍 선양과 승가교육의 진흥 △불교문화 선양 △사찰환경 보존과 대사회활동 강화 △신도교육 체계화를 통한 포교·전법의 확대 △본말사 종무행정체계 구축과 서비스 행정 구현 등 7대 종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231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사면과 관련 "법과 제도적인 걸림이 있다면 제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하는 등 제반 조치들을 과감히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수계자격 강화"

전국 교무국장단 결의문

전국의 교구본사 교무국장단(회장 종월)은 15일 직지사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출가자의 자질향상과 승가공동체 발전을 위해 행자교육을 강화하고 수계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교무국장들은 △사미의 제의 확실한 정착 △강원의 전학 및 편입 △종단법령 재정비 △4급 승가고시등을 통해 승가의 위계확립과 예비승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교육원에 건의했다.

한편 교무국장 연수회는 교무국장 전체회의, 99설문조사 분석 및 연수회 평가, 2000년 본말사 연수계획수립, 습의실참 및 습의교본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의사·교수·방송인·작가…

"불교 제대로 배우고 싶다"

동산불교대 입학생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

SBS 박준영 기획편성본부장, 소설가 남지심씨,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대장, 한국방송통신대학 권세준교수, 한국전력 심창생전무, 정원용 한전교육원장, 박성양 단청 문화재위원 등등. 이밖에도 이회봉 영등포교도소 의무과장을 비롯한 교도공무원 6명, 김병호씨(김병호내과의원 원장)등 의사 11명, 황보수(남양주약국)씨등 약사 10명, 김성남(동서한의원장)씨등 한의사 6명, 일반공무원 12명, 은행원 10여명등이 신입생으로 등록했다.

12일 입학식을 갖은 동산불교대 신입생들의 면면을 보면 유명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에 와있는 착각에 빠진다. 신입생의 학력도 70%이상이 학사, 석사, 박사출신이다. 남학인 비중도 여느대학과는 달리 여학인보다 2배나 됐다.

올해 동산불교대학의 입학인원은 210명. 지난해 150명에 비해 60명이 늘었다. 입학정원도 원서접수 첫날에 50%이상이 접수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주간반인 주부반이 특별히 개설됐다.

재가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산불교대학은 2년간 신심을 겸하게 하는 교육방침아래 대승불교등 18과목 이수와 '나무아미타불'염불을 2만번씩 하고 쓰는 졸업과제물이 화제. 동산불교대학은 2년간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산반야회 김재일회장은 "직장인불자들의 교리에 대한열의가 높고, 일반인들이 불교철학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자연과학을 공부한 분들이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경향이어서 앞으로 교양대학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산불교대학은 92년 개교이후 안동일변호사, 이문옥전 감사관등 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바 있다. 또 97년 LA관음사에 분교를 설립하여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동산불교한글의식교육원과 3년과정의 동산불교전문연구원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 내달 공식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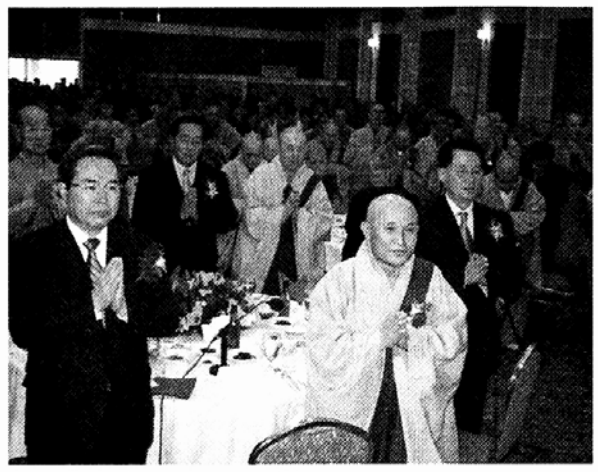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춘 조계종 포교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3월 12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서울·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등 6개지역 90개 포교팀으로 구성된 조계종 포교사단은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교계의 대표 포교단체가 될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교사단은 2000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포교활동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아래 선언문 낭독, 포교활동비전선포, 생명나눔행사, 축하공연등의 행사를 펼친다. 이에앞서 1시 30분부터는 식전행사로 신규포교사 품수식도 개최한다.

한편 조계종 포교사는 매년 불교대학 졸업자중 포교사고시를 거쳐 3백여명이 탄생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정대 총무원장 당선축하 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 당선축하 법회가 용주사 본말사 주최로 17일 수원 캐슬호텔에서 열렸다. 법회에는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과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임창렬 경기도지사, 김인영 의원(민주당)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정대스님은 이날 법회의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불자들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주사는 이날 법회와 관련,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정대스님의 뜻에 따라 취임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늦게나마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총지종 록정대종사 종령 취임식 불교총지종은 제 7대 종령 록정대종사의 추대법회를 15일 역삼동 총지사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총지회 통리원장 등 종단의 승직자와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록정대종사는 취임사를 통해 "그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정토건설의 대서원으로 종단발전을 이룬 전 승직자와 교도의 노력에 경하를 보낸다"면서 "변화하는 세계에 부응하는 종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교화방편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지회 통리원장은 "록정 대종사님의 취임과 더불어 승속이 모두 화합하여 종단이 힘찬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한민족 공동체 추진본부 발족

총선불교연대 '49일 정진주간' 선포

총선불교연대(상임공동대표 청화·박광서)는 14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 앞으로 '맑은 정치 실현을 위한 반인권 부패정치인의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송달했다. 또 총선시민연대가 1차명단으로 발표한 공천반대 정치인 67명에게 '맑은 정치를 위한 자진참회 촉구'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자진참회 촉구' 공문은 "스스로 참회하고 물러나 봉사의 삶을 통해 정치지도자로서 책임있는 회향의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생명을 억압한 행위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참회촉구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총선불교연대는 19일 조계사에서 '부패 정치인 참회, 유권자 심판' 구호를 단 목어와 '참회의 등(燈)' 달기 행사를 갖고 낙천·낙선운동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오는 23일 총선49일전을 맞아, '참회하는 맑은 정치 실현을 위한 49일 정진주간' 선포 및 입제식을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자승스님 종회의원 '당선'

자승스님(전 조계종 재무부장)이 17일 실시된 조계종 2교구(용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용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정대스님의 총무원장 출마에 따라 사퇴함으로써 치러졌다.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자승스님은 69년 사미계, 74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교무국장과 규정국장, 수원포교당 삼막사 연주암 주지, 10~11대(92~98년) 중앙종회의원, 종회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日정토종 미즈다니 종무총장 방한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17일 일본 정토종 미즈다니 고오쇼(水谷幸正) 종무총장(총무원장) 방한 환영연을 베풀고 한-일불교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모임에는 종단협의회 부회장 인곡, 운덕스님과 성초 대정사, 사무총장 홍파, 사무국장 법현, 총지종 효강 법장원장, 원융종 종정 일공,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스님과 홍윤식 동국대교수가 참석했다.

미즈다니 종무총장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한·중·일불교교류대회를 이끌어낸 산파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일본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즈다니 정토종종무총장은 18일 열린 홍윤식교수 정년퇴임 논문봉정식에 참석키 위해 방한했으며,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아 대행스님과 대담을 한 후 19일 출국했다. 〈차주상보〉 정성운 기자

"종교화해법 제정"

여진스님, 정부에 건의

사이버템플 법운사(cybertemple.org) 주지 여진스님이 정부에 '종교 화해법' 제정을 건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진스님은 최근 법제처 앞으로 보낸 '종교 화해법 제정 건의서'를 통해 "새천년을 맞아 종교간의 분쟁소지를 엄격하게 차단하여 종교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종교간 화합, 지역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 화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진스님은 이 법률이 다른 종교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들에게 고함

귀의 삼보하옵고

대망의 새천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종을 애종하시는 종도 여러분의 법체금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999. 12.23 본종 붕해 종정 예하께서 불법 선포한 종단비상특별조치 종령에 불복하여 본종을 애종하고 구종이념으로 뜻을 같이한 전국 종도들이 1999. 12.28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종도들의 호응아래 종헌종법 위법사항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아오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어 창종주 일붕존자의 유지를 받들어 본종을 구종하고 정법수호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난 1999. 12. 23. 16시를 기하여 붕해 종정예하께서 선포한 종단비상특별조치 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함
   1) 종헌 제27조(원로의원 추대) 원로는 종정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추대한다로 종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 종정예하께서 원로의원을 추천은 하였으나 종헌 제27조인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으로 원로의원으로 자격이 없으며 의결권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단, 장연종 의장은 제외)
   2) 종헌 제23조(종정권한) 7항에 종단이 위기사항이라 판단될 때 원로회의의 자문을 구하여 종단비상특별조치령권을 선포할 수 있다고 종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 종정이 원로의원 추천으로 중앙종회에 동의도 받지 아니된 원로의원이 소집되어 의결되었으니 본종령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
2. 종령으로 선포할 수 있는 비상사태라면 종단의 심각한 위기사항이나 내부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도저히 선포할 수 없으며 원로회의 의제가 될 수도 없음으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됨.
   ◐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금강산 관광문제로 되어 있음으로, 만일 본건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종단 조사기관인 규정부와 사법기관인 사정원이 있음으로 이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솔하게 선포한 종령은 잘못된 사항이며 종정 권한을 남용한 것임.
3. 붕해 종정예하께서는 위 1, 2항을 참조하시고 종헌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1999. 12. 23 선포한 종령을 철회하시고, 불법적인 사항에서 구성된 중앙종회 해산과 중앙종회 의장 오현각 스님 및 장봉암 스님의 선임을 취소하고 1999. 12. 23 이전상태로 제반업무를 환원하여 종단이 정상화되고 본위원회에 동참한 5백여종도가 바라는 화합의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종정예하께서 종헌종법을 준수하시고 종정의 품의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4. 본위원회는 지상공개로 제반사항이 뜻하는데로 관철되고 정법수호가 이루어질때까지 지속적인 투쟁과 제 2,3의 폭탄선언을 할 것을 5백여 동참 종도의 결의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이 관철이 안될시에 비상대책위원들과 전 종도가 인천 호불사에서 항의 시위에 돌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기 2544년 2월 17일 목요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혜천	상임위원	혜정
상임부위원장	대륜	상임위원	일훈
부위원장	명종	상임위원	화엄
부위원장	용암	상임위원	법청
부위원장	강설	상임위원	현철
총무	법선	상임위원	능호
간사	지공	상임위원	지성
간사	통영	상임위원	혜성
사무국장	혜성	상임위원	법상
사무차장	법장	상임위원	혜성
		상임위원	봉월
		상임위원	덕화

※ 본위원회 추진사업에 동참하신 전국 483종도 합장